

서평

마이클 에이더스, 김동광 옮김, 『기계, 인간의 척도가 되다: 과학, 기술, 그리고 서양 우위의 이데올로기』 (산치럼, 2011)

[Michael Adas, *Machines as the Measure of Men: Science, Technology, and Ideologies of Western Domina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이정 (한양대학교)

1989년 출판된 마이클 에이더스의 『기계, 인간의 척도가 되다』는 서구인들이 인간과 사회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과학기술을 내세우게 된 것을 뚜렷한 역사적 사건으로 분석해 낸다. 과학기술의 동·서양 격차에 대한 서양인들의 인식과 그 변천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과학기술로 동·서양의 우열을 가르는 이 친숙한 기준이 과연 당연한지 답하려는 시도였다. 1981년 출판된 대니얼 R. 헤드릭의 『과학기술과 제국주의』(2013년 번역)와 함께 과학기술과 제국주의 분야의 고전 반열에 올라 있는 이 저작에 아주 예상치 못할 내용은 없다. 게다가 다분히 도발적이었던 그의 시도는 그가 갖고 있던 과학기술, 동·서양, 그 동·서양의 차이에 대한 통념 덕분에 그 도발성을 꽤 잃었다. 그럼에도 방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한 이 노작은 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했던 서구 문명화 사명의 다양한 결 혹은 타문화를 논할 때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편견의 다양한 변주를 가장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는 유용한 참고서로서 손색이 없다. 이 분야의 연구자라면 놓치기 아까운 4세기에 걸친 풍부한 사례와 그 사례에서 드러나는 변화의 양상을 살펴본 후,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재분석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도 짚어 보고자 한다.

이 책을 명실상부한 고전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10년의 노력이 잘 느껴지는 충실한 사료 발굴에 있다. 저자는 비서구인과 그 문화에 대한 서구 중·상류 식자층의 태도를 과학기술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는 목표 하에 대항해시대부터 20세기까지 직·간접으로 비서구를 만나고, 그에 대해 이야기한 수많은 서구의 저작을 소개하고 분석했다. 프랑스, 영국, 미국인과 아프리카, 인도, 중국에 대한 이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유명한 계몽사상이 볼테르와 콩도르세, 조셉 콘래드와 조지 오웰 같은 소설가, 다윈과 알프레드 월리스 같은 과학자 등 유명인에 그치지 않고 무명의 식민지 관료, 여행자의 기록까지 낱알이 검토한 것은 특히 돋보였다.

저자는 동서 과학기술의 격차 혹은 동서 문명의 차이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서구 산업혁명 이전 시대, 19세기의 산업화 시대,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 방점을 둔 20세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 검토했다. 이렇게 시기별로 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저자는 우선 서구인들이 다소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비서구사회를 열등한 문명으로, 비서구인들을 열등한 인종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혹은 그러했더라도 초기의 우월감은 대개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자부심과 폭넓은 문명 개념에 의존했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이라는 기준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산업화 이전인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논의에서인데, 이는 일반 여행자들의 논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저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문명을 평가하는 확고한 기준으로 등장했다. 산업혁명을 통해 유럽의 우월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서 그 기반인 과학기술이 서양의 사상가, 상인, 여행자, 식민지 관료들이 비서구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다는 해석이다. 저자는 이렇게 과학기술을 기준으로 타문화를 문제시 하는 기준이 과학기술에 대한 회의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서도 흔들림이 없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근대화, 개발론에서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문명화 사명을 서구 지배를 정당화하는 거짓말로 치부하기에는 그 생명력이 놀랍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굳건한 믿음의 기원과 근거, 그 폭과 깊이를 당대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는 구조였다.

저자는 과학기술이란 기준이 자리 잡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두 요소에 주목했다. 하나는 이 변화를 주도한 세력이고, 하나는 흔히 이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종주의이다. 우선 저자는 고상한 원시 문명, 찬란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 서양 사회의 불합리를 드러낼 합리적 문명의 표본으로까지 논의될 수 있었던 아프리카, 인도, 중국 문명이 모두 미개, 쇠퇴, 부패, 정제

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된 데는 과학기술적 업적을 서양 문명의 핵심으로 내세우게 된 새로운 집단, 즉 산업화 시대와 함께 등장한 부르주아 집단의 역할이 주효했다고 주장한다. 산업적 부의 효율적 축적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등장한 이들이 그 기반인 과학기술을 점점 비서구사회를 평가할 유일한 잣대로 휘두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도, 중국, 아프리카에 대한 자국민의 견해에 큰 영향을 미친 19세기 대표적 논자들,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 제임스 밀, 매킨타니 사절단에 참가했던 존 배로우, 인류학자로 더 유명한 프랑스의 구스타프 르 봉 등이 사례였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이들 신흥 집단이 자유 무역이라는 자신들의 이상을 거부하는 비서구를 개방시키고 지배할 정당한 근거로 서구 과학기술의 ‘진보적’ 힘을 내세우면서 과학기술이 인간 사회의 척도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책의 한 절을 별도로 할애할 정도로 인종주의에 주목했는데, 서구 문명화 사명을 인종주의의 산물로 설명해버리고 마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그에 따르면 아주 오만한 몇몇을 제외한다면 인종적 차이에 호소해 아프리카, 인도, 중국에 대한 자신들의 낮은 평가를 정당화한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을 뒷받침한 것은 인종주의에 대한 저자의 아주 제한된 정의였다. 저자는 얼굴색이나 신체적 특징에 따라 인간의 우열이 결정된다는 믿음을 인종주의로 정의하고, 타인종의 열등함을 사회·문화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변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경우는 인종주의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교도에 대한 초기의 거부감과 질시는 종교와 같은 문화적 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화 이후의 비서구인에 대한 우월감은 과학기술이라는 서양만이 소유한 문화적 업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문명화 사명 이념을 제대로 검토하려는 저자의 값진 노력은 바로 위의 강조점 덕분에 아마도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저자가 산업혁명의 원천을 서양의 과학기술로 지목하고, 서양이 증기선과 기차로 상징되는 산업문명에서 19세기 이래 비서구사회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유지했음을 기정사실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은 더 커진다. 사실 이 책의 첫 장은 대항해시대의 여명인 15세기에도 동물이나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서양인들의 능력이 중국인들의 서너 배에 이르렀다는 비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시작했다. 과학기술의 격차는 저자

가 두 문명의 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15세기부터 이미 분명했다는 것이니, 증기 기관과 기차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으로 그 격차를 몸소 경험한 유럽인들이 유럽 문명의 우수성을 내세운 것에 객관적 근거가 없지는 않았다는 말이 된다. 비서구문화에 대한 서구인들의 폄하가 인종주의만은 아니라는 저자의 주장과 결합된다면 이 책은 과학기술을 근거로 내세운 문명화 사명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서양의 문명화 사명 이념에 대한 최상의 변론이 되는 셈이다.

이런 효과는 저자가 저술을 하던 당시로서는 크게 의문시 되지 않았던 몇몇 역사적 가정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탓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이 산업 문명의 발달에 결정적이었고 지식의 축적을 통해 한 방향으로 진보해 나가는 것으로, 그러한 발전 경로를 독자적으로 앞서 밟아간 것은 서양이며, 정신적 측면에 치중한 비서양은 그 서양 과학기술의 전파를 통해서만 과학기술을 갖게 되었다는 가정들이 그것이다.

저자의 선구적 저작 전후로 과학기술과 제국주의의 관계는 많이 파헤쳐졌고 비서구의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도 심화되었다. 서양의 과학기술은 제국주의의 도구라기보다는 제국주의의 산물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의 과학기술 발달 양상도 지적되어 서구의 산업혁명과 물질 문명의 발달을 촉진한 것은 인도와 중국의 앞선 물질 문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나아가 우리가 흔히 서양의 과학기술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러한 다양한 문화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지적하는 지식 교류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동·서양을 두 개의 이질적 실체로 나누고 한 문명을 본질적으로 더 정신적인 문명으로, 한 문명을 본질적으로 더 물질적인 문명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왔던 저자의 결론이 유효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이상 반복되어 온 서구 우월주의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것이 그 재분석의 바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고전적 저작의 가치는 여전하다.

이러한 고전이 뒤늦게나마 번역되어 좀 더 편하게 한국의 독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이 반가운 만큼, 번역이 흡족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읽기가 어렵다거나 “윌리엄 존스 경” 대신 “서 윌리엄 존스”와 같은 어색한 표현을 쓴 것은 차치하고, 1780년대의 이야기가 19세기 말엽의 이야기로 탈바꿈한다거나(174쪽, 원문 133쪽), 원문에도 없는 잘못된 연도(438쪽, 원문 345쪽)가 들어가서 혼돈을 자아내면서 정확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중요한 저작인 만큼 더 공들인 번역을 재판
에서라도 볼 수 있기를 바란다.